



# 바롱 루이 루즈 Baron Louis Rouge 2018

## WINERY

## 와이너리

11세기경 프랑스 국경을 지키기 위해 론 강 유역의 요새로 지어진 Chateau de Montfaucon은 15세기 무렵부터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Cotes du Rhone AOP가 생산되기 이전부터 La Cote du Rhone 이라는 조직으로 11개의 마을에서 와인을 생산했다. 1766년 현재의 Pertuis 가문이 샤토를 인수했고 당시 샤토의 주인 Baron Louis는 일부 와인을 판매했다.

1936년부터 1995년까지 꾸준히 와인을 생산해 온 Chateau de Montfaucon은 주로 지역 조합에 와인을 판매했는데, 그 덕분에 현재까지 다양한 품종의 Old Vines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 이후, 현재의 오너 Rodolphe de Pins은 호주의 Henschke, Chateauneuf-du-pape의 Vieux Telegraphe에서 경험을 쌓은 후 복귀하여 현재 60ha의 규모에서 9개의 Cuvee 와인을 생산하며 전 세계 20개국이 넘는 나라에 와인을 수출하고 있다.

## WINE INFO

## 와인 정보



Lirac, France  
프랑스, 리락



Alcohol 알코올 15 %

Contents 용량 750 ml

Variety 포도품종 Red

Awards 수상내역

Grenache 그르나슈..... 60%  
Syrah 쉬라 ..... 15%  
Carignan 까리냥 ..... 15%  
Cinsault 썬소 ..... 5%

— Decanter 92P

## Winemaking 와인메이킹

- 블렌드의 60%는 사용한 오크배럴에서 12 개월 동안 숙성
- 병입 전 18 개월 동안 에이징
- 리락(Lirac) 마을은 남부 론 지역에서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는 9개 크뤼(Crus)중 하나로, 샤토뇌프 뒤 빠쁘(Chateauneuf-du-pape) 와인접하며, 그르나슈 품종을 주품종으로 파워풀하며 깊은 여운이 있는고 급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 TASTING NOTE

## 시음 노트

Sight 색감

Dry 1 2 3 4 5 Sweet

짙은 보랏빛이 감도는 루비레드컬러

Light 1 2 3 4 5 Full

Nose 향

블랙베리, 블랙커런트류의 검은 과실류와 후추, 감초 등 스파이스류의 풍부한 아로마와 부케

Palate 맛

론의 좋은 포도에서 느껴지는 잘 익고 농후한 과일 향과 후추, 삼나무, 허브 등의 스파이스류의 아로마, 좋은 타닌과 산도의 완벽한 밸런스 와 우아함이 느껴진다.

Serving Tip 와인 팁

실내온도에서 음용.

모든 종류의 육류요리, 향신료를 쓴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